



질병에 대한 면역력 높이기... 예방접종은 '꼭'



동물병원을 찾는 이유

개·고양이 절반 이상 예방접종 위해 내원
접종 과민반응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
토끼·페럿 등 특수동물 종류 따라 달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있어도 평소엔 방문할 일이 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과연 '동물병원'이란 곳은 어떤 이유로 찾아오는 동물들이 가장 많을까?"와 같은 궁금증이 문득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보고서(2018)'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병원을 방문한 개의 59.6%, 고양이의 59.8%가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개와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내원했으며 질병의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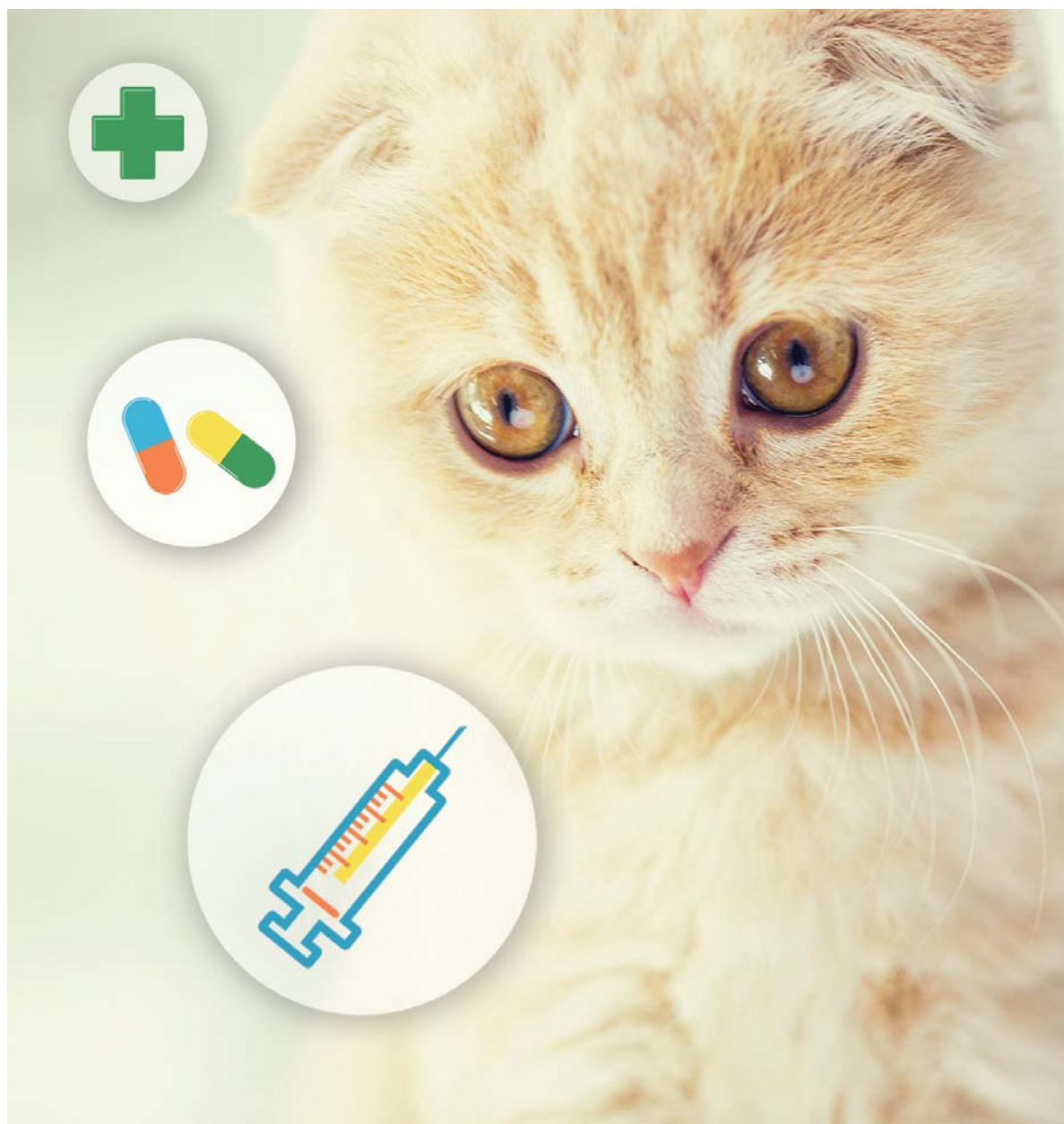
특히 대부분의 경우 새롭게 가족이 된 반려동물이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이유가 '예방접종'인만큼 예방접종에 대해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이에 본 지면을 빌어, 고양이와 특수동물을 진료하면서 보고 들었던 예방접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Q. 고양이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할까요? 접종을 한다면 몇 번을 받아야 하나요?

A=예방접종은 감염 시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보이는 고양이라도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알 수 없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고양이는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은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면역 형성을 위해서 3~5회 정도의 반복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횟수는 병원의 접종 프로그램 및 동물의 면역반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오늘 고양이를 입양 받았습니.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바로 예방접종을 하고 싶습니다.

A=예방 접종은 고양이의 몸에 직접 바이러스와 세균을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입양 등



로 인해 환경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적응기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동물 보호소에서 성묘(어른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린 고양이가 아니니 접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성묘를 입양한 경우에도 이전에 접종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면, 건강한 면역력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기 전 항체가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Q. 인터넷에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A=정확히 표현하면 부작용보다는 접종 과민반응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방접종은 몸 안에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계와 민감하게 반응하면 알러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200마리 중 1마리 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민반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며, 접종을 받지 않았

을 때 질병에 걸릴 확률이 과민반응 발생 확률보다 더 높으므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에 고양이에 접종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구매해서 직접 접종을 해도 괜찮을까요?

A=동물에 대한 임의적 자가 진료는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과민반응 등에 적절히 대처받기 위해서라도 동물병원을 방문해 전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개와 고양이 아닌 특수동물이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A=특수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형 포유류 중 토끼는 바이러스성 출혈병과 광토병(토끼의 광견병) 예방 접종이 필요하며, 페럿은 홍역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기타 포유류와 앵무새 등 반려조, 도마뱀, 거북이 등 파충류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상용 백신은 없기 때문에, 백신 대신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구충 등의 처치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윤기·제주특별자치도동물병원장>

영화觀

흐르는 강물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평 근처에는 두물머리란 공간이 있다. 지명처럼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두 강이 만나는 그곳의 고요하고 너른 아름다움 덕에 사시사철 방문객들도 많고 드라마와 예능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하다.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는 강이나 산을 보러 가는 일은 드물었다. 늘 도시에서 살았기에 '가끔 자연을 보러 가자'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향한 곳은 늘 바다였다. 부산과 제주의 바다를 특히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러 혼자 훌쩍 1박 2일의 바다 여행을 다녀온 적도 꽤 있었다. 바다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앉아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파도의 그 움직임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파도를 보고 있다 보면 저 멀리 수평선에선 고요하다가 물으로 가까워질 수록 펄떡이는 파도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했다. 마치 용왕의 다급한 메시지를 전하듯 가까워졌다가 이내 사라지는 파도가 일으키는 물보라는 늘 그렇게 흥미로웠다.

바다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공간이라면 강은 또 다르다. 강은 바다만큼 변화가 잦은 곳이라 강을 마주보고 있는 건 거울이나 창을 마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마음 상태일 때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걸 물속이 전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 늦게라도 강을 좋아하게 된 건 무척 기쁜 일이고 그래서 영화 속에 강이 등장하면 늘 반갑고 좋았다.

신준 감독의 데뷔작 '용순'에는 여름의 강이 여러 번 등장한다. '용순'은 첫사랑을 만난 10대 소녀의 두근 반 세근 반 달음박질을 경쾌하고 애뜻하게 담아낸 영화다. '침묵', '차이나타운'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이수경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강은 용순의 좋은 친구로 등장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영화 '용순'.

낮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싶은 벽찬 마음을 배우 용순은 강물이다 쓰고 지운다. 아무 대답도 없는 듯 하지만 강은 어찌할 줄 모르고 뛰어 대는 소녀의 박동을 부드럽게 감싼다. 팍팍으로 가득한 용순의 마음을 다독이는 강은 믿음직스러운 울타리 같기도 하다. 그렇게 그림같이 우거진 산의 풍경과 천천히 흐르는 강의 움직임을 보는 것 만으로도 한숨 돌리게 되는 영화가 '용순'이다.

'용순'과는 전혀 다른 강의 정서가 보여지는 영화가 있다.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은 흑백 화면 안에 겨울의 강을 담고 있는 영화다. 북한강변에 위치한 작은 호텔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흘러가고 영화 속에는 강과 물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눈 쌓인 시간들이 반복한다.

'용순'이 생의 정서로 총만하다면 '강변호텔'은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곰곰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다. 배우 기주봉이 연기하는 노시인은 서두를 것 없이 시간들을 살아내는데 그의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은 강의 그것을 닮아 있기도 하다.

바람에 나부끼며 춤 추는 녹색의 잎들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강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여름의 즐거움 중 하나다. 어디론가 천천히 물길을 열어가 그 작은 흔들림과 물보라를 느껴보길 바란다. 도심천의 작은 물줄기를 또한 그 아름다움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좌 남 수

고산리민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용수리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 남 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황소동지회